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한국형 복합리조트 거대한 첫발

1단계 총 사업비 1조 3000억원 투입 서울월드컵경기장 3배 이상의 규모 국내 최대규모 카지노...객실 711실 실내 테마파크 등 2017년 완공 계획

엄청난 규모의 청사진이 잇따라 등장하며 화제를 모았던 영종도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들 중 가장 먼저 파라다이스 시티가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한국의 종합레저기업 파라다이스 그룹과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의 합작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오전 11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구역(IBC-1 2단계)에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기공식을 열었다.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3.5배 면적

총 1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1단계 사업의 대지면적은 20만3041㎡, 서울월드컵경기장(58,540㎡)을 3개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여기에 객실 711실의 5.5성급 호텔과 103실의 부티크 호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K-플라자, 컨벤션, 실내 테마파크, 레스토랑, 스파 등이 들어선다. 파라다이스시티는 1단계 사업 중에 호텔과 카지노를 2017년 3월까지 완공하고 이어 컨벤션, K-플라자, 스파, 부티크 호텔을 7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파라다이스시티측은 개발과정에서 고용 1만 2408명·생산 1조8219억원·부가가치 5776억원,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 76만6263명·생산 6조3729억원·부가가치 2조5662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큰 투자규모, 막대한 기대효과에 걸맞게



20일 기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뱃소 고로 일본 대사 등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한국과 일본 등의 취재진이 대거 모였다.

●선택과 집중 통한 실속 있는 한국형 복합리조트

"우리는 절대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가 아니고 그렇게 될 생각이 없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최중환 대표의 이 말은 파라다이스시티가 지향하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사실 1조 원 넘는 큰 돈이 투자되었지만, 선별주자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두 복합리조트,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리조트에는 6조원이나 투자됐다.

기공식에 맞춰 공개한 사업계획을 보면 잘할 수 있는 분야, 경쟁력 있는 콘텐트를 선택해 집중하는 실속형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사업에서 가장 먼저 완공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현재 파라다이스 그룹이 서울 워커히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보다 4배나 큰 국내 최대규모다. 여기에 국내 첫 VIP용 스카이 카지노를 갖춰 해외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



▲호텔, 카지노, 컨벤션, K-플라자, 실내테마파크, 레스토랑, 스파 등이 들어서는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 파라다이스세가사미

▶20일 열린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의 기공식에서 회사 경영진과 외부인들이 발파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 사진제공 |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이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카지노 경영 노하우는 이미 10년 전에 말레이시아 쟈팅 리조트에 건설팅을 해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함께 완공하는 호텔 역시 부산과 인천 등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축적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

한류 콘텐트를 복합리조트에 접목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요시설 중 하나인 'K-플라자'는 'K-컬처'를 기반으로 K-팝, K-푸드, K-패션, 아트 갤러리, 3D 홀로그램 테마파크, 대형 미디어 조형물 등 한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시장 의존, 컬러 콘텐츠 개발...성공을 위한 과제들

파라다이스시티는 위치나 시설 특성상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변화, 예를 들어 자국 산업을 위해 카지노를 육성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인하대 경영학과 손동원 교수는 영종도에 국내 외 기업의 복합리조트 추진 불이 꺼졌던 올 초 '카지노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주강 삼각주 행정다오 신구에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계획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기고문에서 "중국의 동향과 전략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세우면 영종도 사업은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시장의 불안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함께 노릴 경우 영종도란 위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도로로 갈 수 있는 위치로 모노레일 등 각종 교통시설까지 갖추면 외국 방문객을 유치하기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내국인들이 찾아와 즐기기에 서울에서 멀고 비싼 통행료도 내야 한다. 또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표방해 거품 없이 실속경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중국시장 등을 두고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기존 거대 복합리조트와 경쟁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의 거대한 욕망 수명장, 마카오 베네치안 리조트의 실내운하, 웨라톤 마카오 호텔의 드림웍스 퍼레이드처럼 파라다이스시티를 대표할 특화된 시설이나 콘텐츠를 갖추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영종도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1분이라도 더 빨리"...스키장 '고객 모시기' 전쟁

엘리시안 강촌, 전철역과 연결 접근성 강화 곤지암·파인리조트 등 셔틀버스 증편 노력 시간제 리프트권·렌탈 이원화 시스템도 운영

'최신 시설, 넓고 길 슬로프도 좋지만 가기 편해야 최고.'

최근 들어 국내 스키인구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까다로운 스키어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전국의 스키 리조트들이 신경 쓰는 점 중 하나가 접근성이다. 이동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얼마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느냐가 스키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옮겨줄 눈길을 끄는 스키장은 강원도 강촌의 엘리시안 강촌이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리조트 안에 전철역인 백양역이 있어 경춘선 전철을 타면 바로 스키장에 도착한다. 특히 12월5일부터는 매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ITX-청춘 고속전철'이 백양역에 정차한다. 서울에서 1시간 안팎이면 스키장에 도착해 바로 리프트를 탈 수 있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10회,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28회, 일요일도 24회 운행한다.

접근성이 중요시되면서 스키장마다 무료 셔틀버스에도 공을 들여 경쟁적으로 노선과 운영대수를 늘리고 있다. 엘리시안 강촌은 전철과는 별도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70개 주요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19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서울, 경기 11개 노선 51개 지점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파인리조트도 서울 전지역과 함께 수도권, 수원, 인천, 분당, 일산, 용인 등 40개 지점에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이천의 지산리조트는 이번 시즌에 경기, 인천, 천안 등 기존

18개 노선에 부천, 광명, 오산, 동탄 등을 신설하고 인천, 수원, 서울 강남(심야) 지역을 증편하는 등 셔틀버스 노선을 23개로 확대했다. 셔틀버스에 신경을 쓰는 것은 경기도 스키장만이 아니다.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도 19개 노선 61개 지점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단 1분이라도 더 타게'...시간제 리프트권 등으로 위치장점 극대화

강원도권에 비해 경기도의 스키장들은 슬로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개장일도 짧다. 하지만 1시간 안팎이면 도착해 이동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달 말 개장 예정인 곤지암 리조트는 서울에서 차로 40분이면 도착한다. 부지런한 스키어라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로 스키장으로 향하면 야간스키를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장비의 렌탈과 이동시간을 줄이는 '렌탈 이원화 시스템'이나 리프트 탑승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슬로프 정원제' 등 곤지암리조트의 운영시스템은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원하는 만큼 스키를 타도록 이용시간을 1시간부터 6시간까지 세분화한 시간제 리프트권 '미타인패스'나 새벽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스키는 서울에서 업무를 마치고 밤에 도착해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시킨 상품이다.

경기도 용인의 파인리조트도 서울 강남역에서 48km 거리여서 역시 차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파인리조트도 회사 업무를 끝내거나 학교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스키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겨냥하고 있다. 야간이용권을 늘리고 슬로프 두께 준으로 나누어 운영시간에 차이를 두어 야간권 마감시간을 20분씩 연장 운영한다.



전철에서 내리면 바로 스키장에 들어갈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의 백양역. 사진제공 | 엘리시안 강촌

쏘나타·K3 미국서 '최고의 차' 에드먼즈닷컴, 승용차 부문 선정

현대기아자동차 쏘나타와 K3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사이트인 에드먼즈닷컴이 선정한 '최고의 차(Top Rated Car)' 승용차 부문에서 수상했다.

에드먼즈닷컴은 매년 출시되는 200여개의 신차를 10개 차급(승용, 쿠페, SUV, 해치백, 미니

밴 등)으로 나눠 테스트를 진행한다. 모든 시험 차량은 일반도로에서 로드 테스트를 거치고 통제된 조건 하의 시험 트랙에서 각종 안전 및 편의 기능을 평가 받는다. 테스트 후 시험 차량들은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나누는데, A 등급을 받은 차량만이 '에드먼즈 최고의 차(Edmunds' Top Rated Car)'에 오르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쏘나타는 기본 안전사양과 가족 친화성을 비롯한 전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해 승용차 부문 '최고의 차'

에 선정됐다. 에드먼즈닷컴 편집장 스티븐 올덤은 "쏘나타는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전방충돌 경보장치 등 동급 최고의 안전 사양으로 가치가 올라갔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잘 다듬어진 주행감으로 가족용 세단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야차는 이번 '최고의 차' 시상에서 승용차 부문의 K3와 쿠페 부문의 K3 쿵 등 2차종이 선정돼 미국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원성필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nwon

지스타2014 개막...게임의 진화는 계속된다

'리니지 이터널' 등 신규게임 체험행사 다채 부스의 4면 스크린 등 마케팅 경쟁도 후끈

'게임의 진화는 끝나지 않는다.'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4(사자)'가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엔 국내 주요 게임사의 다양한 신규 게임이 전시된다. 첫날인 20일엔 신작을 먼저 체험하기 위한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연대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지스타에선 향후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트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먼저 멀티플랫폼을 지향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이터널'을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들은 게임을 PC 뿐 아니라 윈도우 및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경험했다. 소니의 N스크린 서비스도 관심을 모았다.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에 와이파이를 연결해 TV와 스마트폰에서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거실에서 가족이 TV를 시청하고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TV에서 하던 비디오 게임을 이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소니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지스타의 또 다른 트렌드는 보는 즐거움이 커졌다. 벡스코는 부스의 4면에 거대한 스



크린을 만들어 주요 게임 영상을 상영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아예 극장을 마련한 기업도 있었다. 현장에선 게임 시연대가 아닌 별도의 구조물로 만든 영화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들을 볼 수 있었다. 스마일게이트의 기대작 '로스트아크'와 엔씨소프트의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혼'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한 인파였다. 두 게임은 모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품질의 그래픽을 선보여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3면 스크린을 만들어 몰입감을 높였다. 매년 지스타에서 이슈가 된 가상현실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에 참가한 오culusVR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비행 시뮬레이션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화제를 낳았다. 또 모험총을 가지고 일인칭슈팅(FPS)게임을 플레이하는 등 실제와 같은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한 중소기업의 기기도 눈길을 모았다.

부산 |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부패·패거리 문화 청산하겠다" 함승희 강원랜드 신입 대표 개혁 선언

"부정부패 척결과 패거리 문화 청산이 강원랜드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

새로운 대표를 맡은 강원랜드가 개혁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패거리 문화의 청산'을 선언했다. 강원랜드 합승희(사진) 신입 대표이사는 17일 경영지원본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창립 16년인 강원랜드는 매출과 순이익이 착실하게 성장했는데도 국민적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라며 "북마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리조트로 발전하기 위해 금품수수, 자금 횡령 등 부패범죄를 가혹하리만치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이사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강원랜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자의 선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기관의 청탁, 개입, 압력 등 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감찰요원



를 투입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함 대표이사는 "강원랜드 임·직원의 채용, 보직·승진 과정에 패거리 문화와 외부기관의 청탁, 압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며 "인사보직, 사업자 선정 등 강원랜드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학연, 혈연, 출신 배경 등 패거리 문화가 작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청탁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들면 역시 내부 감찰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사실이면 당사자는 인사 조치하고, 해당 외부 인사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부 감시기구를 강화해 감사실장은 외부인사의 영입 또는 내부인사 가운데 가장 청렴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인물을 본부장(임원)급으로 격상한다. 또 감사팀은 회계감사팀, 감사2팀은 직무감찰을 전담해 각각 팀에 회계사, 변호사, 수사 감찰 경력이 있는 인사로 보강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